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김경애

발행일

2007년 9월 28일

실무위원회

곽숙희·김영택·신선미·안상수·이택면
전기택·조선주·홍승아

편집인

곽숙희

기획 및 편집

윤희갑

디자인

디자인이즈 02-2122-2000
www.designis.kr

인쇄

청산인쇄 02-2263-8634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002 편집자의 글 | 곽숙희

기 획 특 집

004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이렇게 구상합니다. | 양인숙

005 국가발전정책의 젠더 메인스트리밍 | 김양희

012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 | 김경희

023 성 인지 통계, 어디까지 왔나? | 문유경

이 슈 브 리 프

032 알파걸! 여풍당당! 그 착시현상에 대하여 | 안상수

039 돌봄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제 | 장해경

046 비정규직 법안시행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 정형우

052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등록법의 제정 의의와 한계 | 박복순

국 제 리 뷰

06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식보건 | 김영택

067 탈레반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 무사 솔타니

072 독일 개발원조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로서 젠더마커 | 곽숙희

076 미국의 유급병가 제도 | 비키 로벨

080 OECD 포럼과 행복지수 | 주재선

연 구 노 트

088 주요 외국 헌법의 양성평등 조항 현황 및 함의 | 박선영

093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민현주

097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하여 | 김영란

이번 가을호 젠더리뷰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의 조직개편은 물론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간 젠더리뷰의 전체적인 골격을 유지하되, 편집방향에서는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의 다양한 코너들을 크게 기획특집, 이슈브리프, 국제리뷰, 연구노트의 네 코너로 분리,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다.

첫째로, 이번 가을호 기획특집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성 인지 통계를 통한 젠더분석 등 성 주류화 정책을 다루었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이러한 각각의 분야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데 이번 기획특집의 의도가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의 소위 '삼대 요소' 라고 할 성별영향 평가제도와, 성 인지 예산 제도, 성 인지 통계구축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이번 논의의 시작으로 향후 성 주류화 정책 입안은 물론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어떻게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어떻게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로, 이슈브리프 코너를 통해서는 보다 쉽게 현재 한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성 및 가족 관련 문제나 정책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그 동안 많은 여성정책의 연구보고서나 정책보고서는 이미 “그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긴다”는 편견이 많았으며, 늘 “그 결론이 뻔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딱딱한 형태’의 글 대신에 보다 ‘소프트한 형태’로 정책의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편협하게 하나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가감 없이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여, 여성문제나 이슈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하고자 했다.

셋째, 국제리뷰의 확대개편은 이번 가을호의 가장 커다란 변화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국제화가 화두가 된 지 오래이지만, 실제로 국제적인 정책의 동향, 세계 각국의 여성의 정보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문이나 공중방송과의 해외 뉴스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것인지 늘 문제가 되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의 근원지를 가능한 찾기자 노력한 데에 본 가을호의 특징이 있다. 해당국가의 정보는 가능한 해당국가의 전문가를 통한 정보를 담고자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해당국가의 현장방문이나 인터뷰, 문헌이나 자료 등을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젠더리뷰 겨울호부터는 계제원고를 상시 공모하는 ‘원고 자유 기고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독려를 기대한다.